"주석사찰에서 다비의식을"
연화회 '사찰 다비' 생전접수
상담문의 010-4727-6065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60호 HYUNBULNEWS.COM 2025년 12월 24일(음력 11월 5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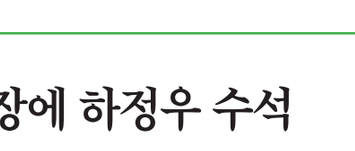


"종교간 화합 · 평화의 빛을" 종교간 화합과 평화 염원이 담긴 크리스마스 트리등(燈)에 불이 켜졌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2월 18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등 점등식'을 개최했다. 이날 점등한 크리스마스 트리등의 빛이 증오를 녹이고, 갈등을 막고, 모두에게 열린 자비와 사랑의 상징이 되길 기원한 진우 스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지혜와 용기의 불빛이 타올라 평화를 이루는 원력이 되길 기원한다"면서 "종교를 넘어 손을 잡고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바라보며 함께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글 · 사진=임은호 기자

로터스월드 현대불교신문
미얀마 정수시설 6호 완공

담마 때이디 사원학교 정수시설 지원

강금자 불자 두 번째 후원…총 6기 조성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와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명우)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이 여섯 번째 성과를 냈다.

로터스월드는 11월 30일 미얀마 양곤 따께따 타운십에 위치한 담마 때이디 사원학교에 다기능 필터가 장착된 정수시설 설치를 완공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뚜카사리 사원학교 정수시설을 후원했던 강금자 불자가 또 다시 설치비를 후원하면서 진행된 것이라 더욱 뜻깊다. 강금자 불자는 현대불교신문 기사에서 캠페인 소식을 접하고 지원을 이어왔다. 이번 정수시설로 전교생 284명과 교직원 6명, 스님 1명과 함께 사원 거주 스님 5명 등 300여 명이 안전한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설치된 정수시설은 관정, 각종 필터, 펌프, 물탱크, 수도시설, 정수필터 보호 시설 등으로 구성됐으며, 깨끗한 식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로터스월드는 완공 후에도 정수시설의 유지·보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지역 주민과 교직원들이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담마 때이디 사원학교는 자체 상수도 시설이 있으나 수질이 좋지 않아 우기에는 빗물을 모아 침전시킨 뒤 이를 식수로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학생들은 빗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 마시며 수인성 질병에 상시 노출돼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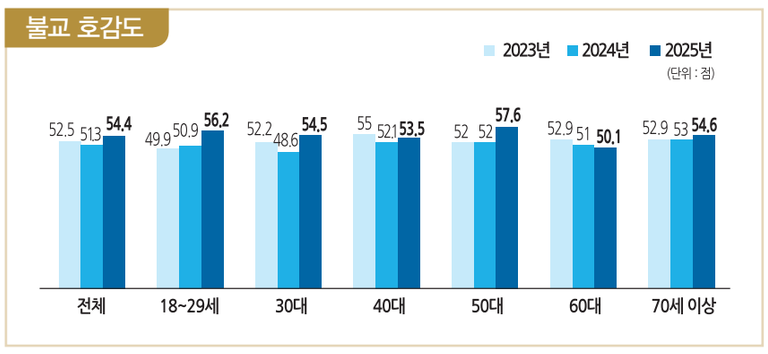
로터스월드 측은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뒤섞인 물을 그대로 사용해야 했던 지역에 깨끗한 식수가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02-725-4277

후원계좌 : 기업은행 636-024138-01-015 (사)로터스월드

임은호 기자

Z세대 '호감도' 최고…'넥스트 스텝' 고민을

한국리서치 종교인식조사서
호감도 부문 불교가 'TOP'
10~20대 · 50대서 호감 높아
젊은 층 호감도 상승 '긍정적'
"청년 포교사들 육성 통해서
'또래 커뮤니티' 형성 나서야"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사회 주요 종교들의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불교가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10~20대와 30대의 불교 호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돼 이들을 불교 신도로 유입시킬 '넥스트 스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는 12월 17일 '2025년 종교인식조사: 주요 종교 호감도와 종교 영향력, 효능감'을 발표했다. 한국리서치는 지난 2020년부터 한국 주요 종교의 호감도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해 왔으며 올해는 11월 21~26일에 조사가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불교의 호감도는 54.4점으로 지난해 대비 3.1점이 증가해 2020년 조사 이래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가톨릭은 52.7점, 개신교는 34.7점, 원불교는 30.3점, 이슬람교는 16.3점으로 조사됐다.

불교의 호감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51점 이상)은 전체의 49%이며, 특히 76점 이상으로 매우 높은 호감도를 보인 사람은 전체의 26%였다. 반면 24점 이하로 매우 호감도가 낮은 사람은 전체의 16%정도다.

세대별로 보면 불교에 대한 호감도는 전 세대에서 50점을 넘겼다. 특히 50대(57.6점). 18~29세(56.2점)에서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지난해와 비교해 젊은 층인 18~29세, 30대에서의 호감도가 5점 이상 상승하며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점이 고무적이다.

반면 종교의 영향력과 효능감을 묻는 조사에서 불교는 이웃종교보다 낮은 지표를 기록했다.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남성(32%)보다는 여성(43%)이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18-29세 22%, 70세 이상 56%). 또한 개신교 신자(84%)가 가톨릭(62%)이나 불교(47%) 신자에 비해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비율이 높았다.

종교의 효능감을 묻는 질문에는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 안정감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2%로 가장 높았다.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데(78%)',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데(74%)', '인간관계를 맺는 데(74%)', '소속감을 갖는 데(74%)'에도 4명 중 3명 정도가 도움된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높을수록 종교의 효능감에 대해 긍정적이었는데, 18~29세는 '종교가 소속감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1%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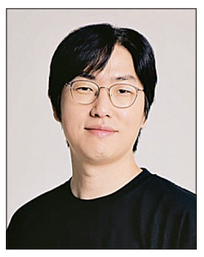
젊은 층의 불교 호감도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은 '힙불교' 트렌드의 영향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Z세대와 알파세대의 불교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향후 이들을 신도로 유입시킬 수 있는 '넥스트 스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종교를 가짐으로써 소속감과 유대를 형성하는 젊은 층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또래 커뮤니티'로의 불교 공동체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최근 템플스테이를 버킷리스트에 올리고 일상생활에서 염주를 착용하는 젊은 '정서적 불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Z세대를 불교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SNS와 뉴미디어를 통해 그들이 공감할 불교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면서 '또래 커뮤니티'를 자연스럽게 형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종단적으로 청년 포교사를 양성해 '또래 커뮤니티' 형성 및 운영을 맡기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불자회장에 하정우 수석

고문 강훈식 · 간사 이영수 내정
진우 스님에 법명 '혜우'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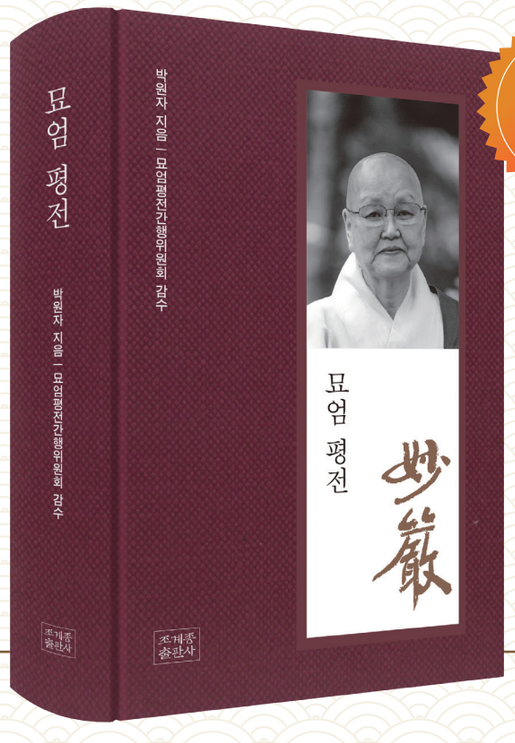


이재명 정부 초대 청와대 불자회장에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사진〉이 내정됐다. 지난 11월 청와대 불자회장에 내정됐다 종교 논란을 빚었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문을 맡았다.

불교리더스포럼(상임대표 이기흥)은 12월 12일 열린 '불기 2569년 불교지도자초청 국민화합기원 송년만찬'에서 청와대 불자회 고문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회장에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간사에 이영수 대통령실 농림축산수석비서관이 내정됐다고 발표했다. 이기흥 상임대표는 "청와대 불자회는 조만간 조계사에서 법회를 열고 정식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혜우(慧友)'라는 법명을 받았다. 진우 스님은 "지혜로 다 함께 벗과 도반이 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정우 수석은 1977년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네이버에서 AI 분야를 이끌었으며 'AI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 개념을 제안했다. 지난 6월 15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여수령 기자



성철 스님에게 선禪을, 자운 스님에게 율律을,
운허 스님에게 경經을 모두 전해 받은
한국불교 최초의 비구니 율사

묘엄 스님 세주묘엄 世主妙嚴 1932~2011 평전 출간!

박원자 지음 | 묘엄평전간행위원회 감수 | 636쪽 | 값 38,000원

조계종 출판사 지혜와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구입문의 : 불교전문서점 향전 www.jbbook.co.kr | 02-2031-2070